

11

Vol.80
November, 2022

새 정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범정부 계획 발표
고용노동부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 발표
2022년 7월, 8월, 9월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HRD 11월의 이슈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확대
3만 명



고수준 기술인력
양성 확대
1,530명



내년 외국인력
도입 확정
11만 명



9월 고용시장,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수 70.7만 명 증가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 다리, HRD

•

최근 정부는 2030년 청년정책과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도 청년들의 튼튼한 미래를 복원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이 주도하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도전에 나섰다.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든든한 희망 다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HRD가 지향하는 꿈이다.

통권 제80호

발행일 2022년 11월 15일

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주소 (우)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
한국산업인력공단 훈련품질센터
052-714-8327

구독신청 및 문의 jycheon47@hrdkore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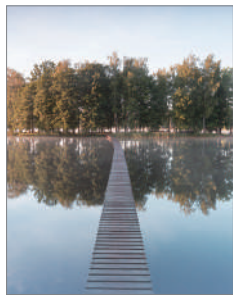
QR코드를 스캔하면

월간 'HRD동향'

구독 신청과

기존 구독 정보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COVER STORY**청년들에게 행복한
희망 다리가 되고 싶은
HRD의 꿈을 담았습니다.**CONTENTS****HRD 스페셜**

- 04 새 정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범정부 계획 발표
- 07 고용노동부,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 발표

HRD 현장

- 08 2022년 7월·8월·9월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 09 월드잡플러스 해외채용정보!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해보세요
- 09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2 KRIVET 패널 학술대회' 개최
- 10 내년에 외국인력 11만 명 도입 확정
- 1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12 제1호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삼성중공업에서 개소
- 13 폴리텍대, 신산업 이끌 대졸 청년 기술 교육과정 모집
- 14 2022년 “국제기능올림픽 특별대회 고양” 열전 끝 폐막
- 16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3만 명 돌파

고용 BRIEF

- 18 2022년 9월 고용동향
- 19 이달의 키워드 & HRD 생생정보

연구 INSIDE

- 20 일반고 특화 직업훈련 효용성 제고 방안
- 20 산학협력에 기반한 국가 수준 직업교육 체계화 법제 연구
- 21 고용행정자료 활용 방안 해외 사례 연구
- 21 코로나19 이후 주요국의 해외취업 수요와 유망직종 취업 특화모델 발굴방안 연구

기관 LINK

- 22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폴리텍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본 소식지는 사람과 환경에 해가 적은 공기를 인쇄방식으로 제작합니다. 또한 인체에 해로운 파우더를 사용하지 않으며 친환경상품진흥원으로부터 환경마크 인증을 획득한 재생 펄프용지를 사용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훈련품질센터는 2050 탄소중립에 함께합니다.

새 정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법정부 계획 발표

한덕수 국무총리,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주재

①희망복원, ②공정기회, ③참여보장의 새정부
청년정책 본격 추진

청년 일자리방향, 청년·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방안도 논의



2022년 10월 26일, 국무조정실



QR코드를 스캔하면 새 정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법정부 계획 발표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26일(수)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7차 청년정책조정 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 ‘청년 고용 정책 방향’, ‘2023년 청년정책 평가계획’ 등 3개의 안건을 상정·의결했고,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방향’ 등 2개의 안건을 보고했다.

안건 1.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

정부는 청년이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래세대의 주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법정부 차원의 「청년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청년’을 정부 핵심 어젠다로 설정하여, △희망, △공정, △참여 기조하에 역대정부 최초로 청년 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했다. 「청년정책 추진계획」은 코로나 장기화에 이은 3high(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으로 어려워진 청년의 삶 여건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정책 국정과제를 반영하여 마련되었다는 의의가 있다.

안건 2. 청년 고용정책 방향

두 번째로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청년 고용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취업애로청년부터 재학 청년까지 청년의 다양한 상황에 맞춘 취업서비스를 민관이 협업하여 확대 지원하고, 동시에 채용부터 입직 이후의 임금결정까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정 채용문화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안건 3. 2023년 청년정책 평가계획

청년정책 개선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2023년 청년정책 평가는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의 2022년도 청년정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로, 금년도 평가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중앙부처 종합평가는 개별 과제에 대한 평가에서 분야별(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종합평가로 개선하여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에서 발전방안을 도출한다.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청년정책 과제 그룹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진행하여 관련 과제 간 연계·조정방안, 사각지대 해소 방안, 새로운 정책대안 등을 도출한다. 17개 시·도에 대해서는 종합행정기관이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과제평가에서 기관평가로 전환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기관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늘 보고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의 세부내용은 위원회 직후 국토부에서 별도로 발표했고,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방향’은 후속 이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한덕수 총리는 대국민 공모를 통해 추천된 청년 12명을 포함하여 신지호 전 국회의원(부위원장) 등 18명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새로 위촉하고 중임을 맡아 준 위원들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 3대 방향 | 희망, 공정, 참여



💡 다양한 청년의 요구를 포괄하여 기회 제공과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1 희망 | 청년의 “튼튼한 미래” 복원



일자리

청년 취업 역량 강화

- ☑ 민간협업 일경험 활성화
- ☑ 디지털·신기술 분야 훈련강화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조기제공

- ☑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 ☑ 구직단념 청년 지원



민간주도 청년창업 활성화

- ☑ 민간주도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
- ☑ 청년창업펀드 추가조성



교육

신산업·신기술 미래 혁신인재 양성

- ☑ 반도체·디지털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
- ☑ 민간협업 기반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확대



교육비 부담 완화

- ☑ 국가장학금 지속 지원
- ☑ 저금리 학자금 대출 지원 확대



주거

청년 내집 마련 지원

- ☑ 청년중심 공공분양 확대
- ☑ 청년층 부동산 대출규제 정상화



청년특화 주거지원 확대

- ☑ 주택구입·전세대출 확대
- ☑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주거품질 및 주거보호망 강화

- ☑ 전세사기 피해예방 강화
- ☑ 공공임대주택 질적 개선



복지

취약청년의 도약지원

- ☑ 자립준비청년 맞춤형지원
- ☑ 가족돌봄청년 지원체계 구축



청년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 ☑ 청년 도약계좌 신설
- ☑ 병사 자산형성지원('25년 205만원)



2 공정 |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 보장

- ☑ 「공정채용법」 추진
- ☑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설치



3 참여 | 청년이 주도하는 “청년 정책”

- ☑ 청년보좌역 배치 및 2030자문단 설치·운영
- ☑ 청년참여 정부위원회 확대



고용노동부,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 발표

지역일자리맵(MAP) 플러스+사업 등 신설하여
지역 중심 일자리 창출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체계적
뒷받침



2022년 10월 7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하면
고용노동부,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 발표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0월 7일 울산광역시청에서 개최된 '제2회 중앙지방협력 회의'에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은 최근 국가적 문제로 심화되고 있는 '지방소멸 위기'의 핵심 원인 중 하나가 '지역의 좋은 일자리 부족'에 있다는 인식하에, 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진단하고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일자리 사업 체계를 혁신함으로써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양질의 지역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중앙정부 주도의 일자리정책 및 사업을 과감히 분권화한다.

정부는 분권화의 출발점으로서 지역의 산업현황, 노동시장 실태 등 지역단위 일자리 정보에 관한 '지역일자리맵(MAP)'을 구축하여 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을 비롯해 투자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제공한다. 그리고, 자치단체가 일자리정책 및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고용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지원 하고, 이를 중앙정부와의 협력과 소통을 위한 일자리 핫라인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이 권한을 갖고 주도하는 '지역 주도 일자리사업'을 체계화하고 확대하여 지역의 주력산업 일자리창출 및 신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내년에는 '플러스 +사업'을 신설하여 자치단체가 조선업, 반도체 등 지역 주력산업의 구인난 해소 등을 위해 기존 정부 사업의 지원 요건을 맞춤형으로 조정하고, 정부예산을 활용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 둘째, 지역의 고용 위기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한다.

고용 위기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올해 1월 신설된 '노동전환 분석센터'를 통해 지역별 일자리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고용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과 기업에게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 '산업구조변화 특화훈련', '노동전환장려금' 등을 통해 근로자의 직무전환 등 중점 지원한다.

또한, 「고용위기지역」 제도를 지역별 위기특성 등을 고려한 단계별 지원체계로 전환 하여 고용 위기 발생 지역의 신속한 극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지역 주도의 일자리창출 기반을 조성한다.

지역일자리에 특화된 최초의 독립법인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역고용의 중장기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 내 모든 일자리사업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는 등 자치단체의 일자리 책임행정도 강화한다. 아울러, 자치단체의 일자리사업 성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컨설팅과 교육 등 지원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평가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석열정부 6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며, “중앙정부가 주도하여 공공일자리나 단기일 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산업·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이번에 발표한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을 통해 일자리정책과 사업을 과감히 분권화하고, 자치단체와 함께 기업 중심의 세밀한 지원방안을 마련·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2022년 7월·8월·9월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7월 기능한국인 (주)피에스디이 박동석 대표

8월 기능한국인 (주)디알텍 정병욱 대표

9월 기능한국인 하늘농가(주) 고화순 대표명장



2022년 10월 25일,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QR코드를 스캔하면 2022년 7월·8월·9월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어수봉)은 반도체 설비 전문가 박동석 대표(주피에스디이) 등 3명을 올해 7~9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하고, 10월 25일 서울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시상식을 열어 고용노동부 장관 증서를 수여했다.

「이달의 기능한국인」은 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숙련기술인이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이 2006년 8월부터 매월 한 명씩 선정(2022년 9월 기준 187명 선정)하고 있으며 직업계 학교 등을 졸업하고 산업현장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가운데 사회적으로 성공한 숙련기술인이 대상이다.

7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된 (주)피에스디이 박동석 대표는 반도체 제조 장비와 부품을 제조하는 기계 설비 분야 전문가로, 기계 설계부터 제조까지 모든 과정을 총괄하는 실력자다. 고등학교 졸업 후 입사한 회사에서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했고 이후 전자제품 제조기업에서 전자레인지 상품기획, 제품 설계, 공정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며 기계 설계 전문가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후 반도체 장비회사에서 플라즈마 처리장치를 다루며 12인치 웨이퍼 설비 장비의 국산화에 성공하며 본격적으로 반도체 설비 기술을 키웠다. (주)피에스디이 창업 이후에도 반도체 제조 설비 모듈에 필요한 여러 기술을 개발했는데, 특히 반도체 공정 챔버 특허 같은 전문기술은 반도체 제조회사로 연결되어 전 세계로 간접 수출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500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얻었다. 반도체 제조 장비의 국산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박 대표는 최근 초미세 패턴용 나노 임프린트 기술의 국산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8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된 (주)디알텍 정병욱 대표는 전자제품 부품과 제빙기, 전동 모터 등 전기를 활용한 제품 제조 분야의 전문가다. 정 대표는 공업고등학교 전기과에 진학하며 군대에서도 통신병 보직을 받아 전신주를 타고 통신장비를 관리하는 등 끊임없이 전기 활용 기술자로서의 기반을 만들었다. 전자부품 제조회사에 입사하여 제빙기의 국산화에 매진하여 기술력을 키웠고 냉장고용 제빙기 부품을 생산하는 (주)디알텍을 창업했다. 끊임없는 기술 개발을 통해 전자식 제빙기를 개발하고, 살균기능을 보유한 제빙기까지 선보였다. 최근에는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이동 기기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헤어핀 와인딩 모터를 개발, 양산하는 데 성공하였다. 정 대표는 기술 발전을 위해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주 2회 이상 기술 전수 교육시간을 운영하고, 전 직원 기술활용 보고서 작성 및 공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올해 연말에는 직원들에게 성과에 따라 사내주식을 제공하는 성과급제도를 시행하여 회사의 이익을 직원들에게 돌려줄 계획이다.

9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된 하늘농가(주) 고화순 대표는 순수 국산 농산물을 신선하고 안전하게 다루는 기술을 활용해 신선편의 농산물을 제공하고 있는 나물 가공업계 최고 전문가다. 고 대표는 도라지 농사를 지으시던 부모님을 위해 농산물 유통회사에 도라지 전처리 제품 10팩을 판매한 것을 계기 삼아 본격적으로 '전처리' 기술을 활용하여 농산물 가공을 시작했다. 편리함과 영양으로 무장한 '전처리' 농산물은 입소문을 통해 소문이 났고, 이후 고 대표는 미소식품(현 하늘농가)을 창업하여 나물 전문 가공회사로 성장시켰으며, 현재는 여성 대표(CEO)로의 성공 신호로 농산물 가공업계를 이끌고 있다. 고 대표는 나물 종류별 비결을 다르게 적용한 현대적 위생 가공기술을 적용하는 데 앞장서고 있고, 급속 해냉동, 액체 냉동 기술을 활용해 간편조리식품(HMR)을 연구 개발하며, 나물 하나만으로 연 매출 131억 원 이상을 달성했다. 맛과 영양이 모두 우수한 우리나라 나물 알리기에도 힘쓰고 있는 고 대표는, 전처리 기술과 가공 기술을 전국 강연을 통해 전수하고 비건(Vegan, 식물성 채식주의자)식 인기에 힘입어 미국 등 해외에 수출하여 세계 시장에 나물을 알리고 있다.

월드잡플러스 해외채용정보!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해보세요

한국산업인력공단-네이버 업무협약 통해 해외
취업 채용정보 연계, 네이버 검색결과에서
쉽고 빠르게 해외취업 채용공고 확인 가능



2022년 10월 6일, 한국산업인력공단



QR코드를 스캔하면 월드잡플러스 해외채용
정보!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해보세요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어수봉)은 10월 6일부터 네이버(대표이사 최수연) ‘채용
정보’ 서비스를 통해 월드잡플러스 해외취업 채용정보를 제공한다.

‘네이버 채용정보’는 네이버가 워크넷 등 다양한 채용전문 사이트 정보를 연동해 검색
결과를 통해 조건에 맞는 채용공고를 종합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번 협약을 통해
공단에서 운영 중인 월드잡플러스의 다양한 해외취업 채용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공단은 월드잡플러스 정보 연계를 통해 그간 네이버가 제공하지 않았던 해외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구직자가 쉽게 해외취업 정보를 확인, 해외취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직자는 네이버에 접속해 ‘월드잡플러스’, ‘채용정보’ 키워드를 검색창에 입력하면
곧바로 월드잡플러스 채용공고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공단은 향후 ‘미국취업’이나 ‘일본
취업’과 같이 국가명으로 검색하거나, ‘해외취업’ 등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다.

한편, 월드잡플러스(worldjob.or.kr)는 공단이 운영하는 해외통합정보망으로 해외
취업 채용정보를 포함, 해외취업설명회 개최, 연수과정 운영, 일자리 알선, 정착지원금
지급 등 구직 초기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단계별로 다양한 해외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문가관과의 제휴를 통해 이력서 첨삭 및 어학, 직무강좌를 회원
대상으로 제공하며, 한국 핸드폰이 없는 재외국민의 회원가입 편의 강화를 위해
카카오와 네이버를 통한 간편 로그인 서비스도 지난 4월 개시했다.

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이번 네이버와의 채용정보 공유를 통해 구직자들의 해외취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해외취업 진입장벽이 낮아지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청년들의 성공적인 해외취업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2 KRIVET 패널 학술대회’ 개최

한국교육고용패널·인적자본기업패널
학술대회 함께 열려



2022년 10월 5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



QR코드를 스캔하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2 KRIVET 패널 학술대회’ 개최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은 10월 5일(수) 오전 9시 30분부터 ‘2022 KRIVET
패널 학술대회’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제17회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학술대회와 제11회 인적자본기업패널(HCCP) 학술대회가
함께 운영되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한국경제연구학회,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한국교육사회학회,
한국교육컨설팅코칭학회, 한국교육평가학회, 한국교육행정학회, 한국기업교육학회,
한국노동경제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산업교육학회, 한국생애개발상담학회, 한국
인력개발학회, 한국인사관리학회, 한국조사연구학회, 한국직업교육학회, 한국진로
교육학회, 한국평생교육학회(가나다 순)와 이번 학술대회를 공동 주최했다.

제17회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학술대회에서는 ‘대학생활 I’, ‘대학생활 II’, ‘고등
교육 및 노동시장 이행’, ‘진로개발’, ‘KEEP 대학원생 수상논문 발표’ 등의 주제를 다룬
연구 논문이 발표·공개되었다.

또한 제11회 인적자본기업패널(HCCP) 학술대회에서는 ‘근로자와 인적자원개발’,
‘인적자원개발과 성과’, ‘기업환경과 인적자원’, ‘HCCP 대학원생 수상논문 발표’ 등의
주제를 다룬 연구 논문이 발표·공개되었다.

내년에 외국인력 11만 명 도입 확정

현장의 극심한 인력난을 반영하여 역대 최대 규모 도입

내국인 일자리 보호와 함께 외국인근로자의 안전, 인권 보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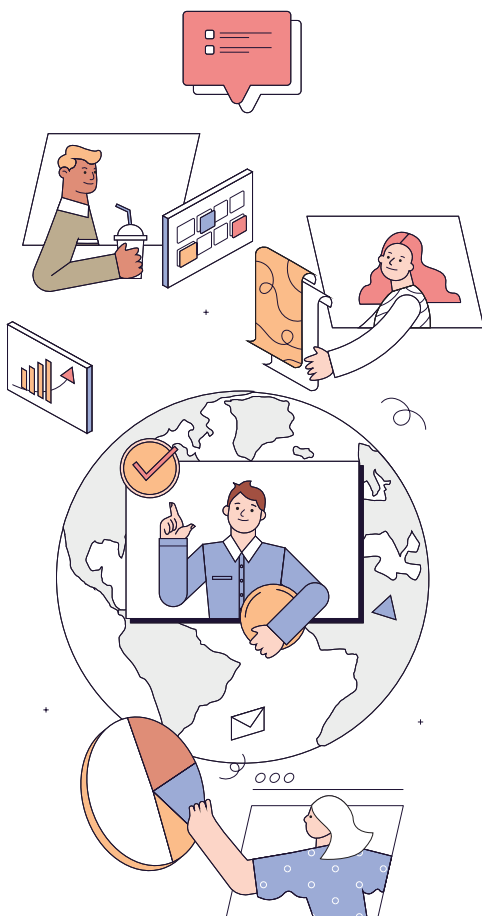
2022년 10월 28일,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QR코드를 스캔하면

내년에 외국인력 11만 명 도입 확정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조업·농축산업 등 산업현장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10월 25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비자) 도입 규모가 11만 명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산업현장의 심각한 구인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산업현장에서는 중소제조업, 농축산업 등을 중심으로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이는 해당 업종의 낙후된 근로환경으로 인한 구인·구직 미스매치 등 구조적 요인과 함께,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구인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력부족 업종으로의 이동이 지연되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비전문 외국인력의 입국 규모가 급격히 줄어든 영향도 큰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됨에 따라, '22년 9월 현재 E-9 외국인력 체류 인원은 24만5천 명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19년 말 27만7천 명)의 88.4%에 그치는 상황이다.직종별 분석에서도 저숙련 직종에서 부족 인원이 집중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상대적으로 저숙련 외국인력 수요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23년 E-9 외국인력 도입 규모 결정 시 지난 2년간 도입 규모 대비 입국하지 못했던 외국인력 규모(9.1만 명)와 내년에도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외국인력 입국 추이를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을 고려하였다.

또한, 체류 기간 만료 등에 따른 인력 대체 수요(5.1만 명)와 함께, 장기 인력 부족 전망 등을 토대로 한 산업현장 신규 수요(4.8만 명)를 충분히 반영하였다. 아울러, 업종에 관계없이 인력을 배분할 수 있는 탄력배정분(1만 명)을 설정하여, 연중 업황 변동에 따라 인력 부족 업종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장기 인력 부족 추세치 외에도 관계부처를 통한 업종별 외국인력 수요조사 결과 및 지자체 건의 내용 등을 토대로, 내국인 일자리 잠식 등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내국인을 구하기 힘든 업·직종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향후 외국인근로자 고용 전 사업주의 내국인 구인 노력 검증을 체계화하는 등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내실화할 계획이다.

'23년 도입 규모는 산업현장 구인난 해소를 위해 예년보다 조기에 결정한 것으로, 11월 중 고용허가제 신청을 받아 '23년 초부터 필요인력이 신속히 입국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연도별 도입 규모가 아닌 전체 체류 인원 한도로 관리하는 방문취업동포(H-2 비자)의 경우, 코로나19 회복 상황 등을 고려하여 '22년과 동일한 수준의 체류 한도인 25만 명을 유지하면서, 향후 인력 수급 추이를 살필 예정이다.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대응하여 외국인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추진한다. 먼저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한다.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는 한편, 5인 미만 농어가도 산재보험 또는 농어업인안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고용허가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외국인근로자 산업안전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장 지도·점검(근로감독관·산업안전감독관 합동점검 포함)을 '23년 사업장 3천 개소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 영상을 송출국 현지어로 제작하여 입국 전 교육에 활용하는 등 외국인근로자 노동인권 강화를 위한 근로자, 사업주 대상 교육도 내실화할 계획이다. 또한,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 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가설 건축물의 숙소 제공 여부 등 고용허가 시 기숙사 시설 확인 등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내 인력을 채용하고 싶어도 구하기 어렵다는 중소기업들의 절박한 호소와 산업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되, 내국인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도입 규모를 정하였으며, 외국인력 도입이 확대되는 만큼 외국인근로자의 인권과 산업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신설된 '이러닝운영관리사' 종목의 검정 기준 등 마련



2022년 10월 5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하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10월 5일(수) 국무회의에서 2023년부터 시행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인 '이러닝(e-learning)운영관리사'의 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마련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러닝운영관리사는 코로나19 이후 원격교육 활성화로 이러닝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관심과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신설된 자격으로,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검정 시행기관 선정 등 준비를 거쳐 2023년 하반기 첫 검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공포일 시행)에는 이러닝운영관리사 종목의 등급을 단일등급으로 명시(시행령 별표1)하고, 검정의 기준(시행령 별표3)을 마련하였다.

이러닝운영관리사 검정의 기준

- ① 이러닝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② 이러닝 학습자와 교사·강사의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③ 이러닝 학습콘텐츠와 시스템을 운영·관리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이외에도 국가기술자격의 조사·연구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중 하나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2022년 5월)하여 이를 반영하였다(시행령 제9조).

제1호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삼성중공업에서 개소

조선업의 내일, 원·하청 공동훈련으로 준비한다



2022년 10월 6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하면 제1호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삼성중공업에서 개소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탄소, 디지털 경제 등 산업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원·하청기업이 협력하여 직무전환 등 공동훈련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0월 6일(목) 15시 삼성중공업(경상남도 거제 소재)에서 제1호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개소식을 진행했다.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는 산업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전환 진행단계에 맞춰 직무전환 훈련 등을 제공하는 모델이다. 올해 15개소를 신설할 예정인데, 첫 번째로 삼성중공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가 개소했다. 삼성중공업은 협력업체 근로자와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스마트 선박에 대한 통찰력 제공,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3차원 설계도 활용 등 직무전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늘 개소 이후 올해 하반기에만 7개 과정, 480명 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조선업은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자율운항 등 선박의 지능화, 디지털 조선소 구축, 선박 연료의 탈탄소화 등 산업구조 변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기존인력의 고용불안과 원·하청 간 기술 수준 격차로 인해 이중구조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가 개소되면 대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전수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전환 과정에서 고용안정과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15개소를 선정하였고 2026년까지 총 35개소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특히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조선업 분야 중심으로 산업전환형 공동훈련센터를 추가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케이-디지털 플랫폼」도 함께 개소하였는데, 「케이-디지털 플랫폼」은 중소기업 재직자, 청년 구직자 등 지역 내 다양한 훈련수요자에게 디지털 융합 훈련이 가능한 훈련시설을 개방·공유하고 디지털 융합훈련을 제공하는 공동훈련 모델이다. 작년에 신규 도입되어 2022년 현재 20개소가 선정되었거나 운영 중이고, 2025년까지 60개소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삼성중공업 「케이-디지털 플랫폼」은 경남지역에서 최초로 개소하여 청년구직자 대상으로 케이-디지털 트레이닝 등 디지털 융합훈련을 실시하고, 지역주민 등에게도 디지털 훈련시설을 공유·개방한다.

한편, 개소식 행사 이후에 이정식 장관은 삼성중공업 공동훈련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액화천연가스(LNG) 연료저장탱크 철판용접 기술훈련과정과 올해 국제기능올림픽에 출전 예정인 삼성중공업 소속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과정을 참관하고 협력업체 근로자와 국가대표 선수를 격려하는 자리도 가졌다.

이정식 장관은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를 통해 산업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근로자의 직무능력 제고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특히, 조선업은 향후 「조선업 상생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조선업 경쟁력 강화와 근로조건 개선에도 힘써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폴리텍대, 신산업 이끌 대졸 청년 기술 교육과정 모집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고수준 기술인력
양성 1,530명으로 확대

수요 꾸준한 전기, 기계, 산업설비 등 국가기간·
뿌리산업 직종 직업훈련 제공

난민인정자, 다문화가족에 입학범위 확대, 탄소
분야 경력자 가산점 부여



2022년 10월 26일, 한국폴리텍대학



QR코드를 스캔하면 폴리텍대,
신산업 이끌 대졸 청년 기술교육과정 모집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조재희)은 11월 1일부터 전국 35개 캠퍼스에서 교육기간 6개월 이상 1년 이하인 국비 직업훈련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청년 구직자에게 신산업분야 기술교육을 제공하는 ‘하이테크과정(1,530명)’, 모든 연령층 구직자에게 일자리 수요가 꾸준한 국가기간·뿌리산업 분야 기술훈련을 제공하는 ‘전문기술과정(3,380명)’ 등 다양한 기술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2023학년도 한국폴리텍대학 국비 직업훈련과정 모집 개요

과정	학력 및 자격 기준	나이 기준	모집정원
하이테크과정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동일 및 유사 계열 2년 이상 경력자	만 39세 이하	1,530
전문기술과정	학력 무관	만 15세 이상	3,380
일반계고위탁과정	일반계고 3학년 진급 예정자	만 15세 이상	425

① 청년층 대상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직업교육 확대

‘하이테크과정’은 정부의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계획으로 운영하는 청년층 대상 고수준 직업교육과정이다. 전문대학 졸업(예정) 이상의 학력, 산업기사 이상 자격, 관련 계열 2년 이상의 경력 중 하나를 갖춘 청년 구직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폴리텍은 매년 고학력자 직업교육 수요를 반영해 반도체, 인공지능(AI), 저탄소,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 기술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이테크과정’ 정원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 인공지능(AI)·디지털 및 저탄소 분야 학과 10개를 신설하고, 소프트웨어(SW) 관련 학과 5개를 개편해 작년 대비 모집 정원을 300명 늘렸다.

산업과 일자리 동향에 맞는 기술교육을 제공해 취업률도 우수하다. 2021년 문을 연 광주캠퍼스 AI융합과(88.9%), 남인천캠퍼스 항공MRO과(87.5%)는 각각 국가 인공지능(AI) 혁신거점으로 지정된 광주, 항공정비(MRO)산업 클러스터를 추진 중인 인천에서 신산업 맞춤 기술 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② 열린 취업문, 국가기간·뿌리산업 직종 훈련 3,380명 모집

전기, 자동차, 산업설비 등 국가기간·뿌리산업 직종 중심의 ‘전문기술과정’은 만 15세 이상 구직자라면 학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전문기술과정 취업률은 대전캠퍼스 기계시스템과 100%, 동부산캠퍼스 스마트전기와 92.0%, 화성캠퍼스 자동차도장과 91.3% 순으로 높았다.

2023학년도부터 관계 법령에 따라 난민인정자, 다문화가족까지 직업훈련과정 입학 범위를 넓혔다. 하이테크과정 저탄소 분야 학과 지원자 중 탄소 분야 관련 경력자는 최대 5% 가산점을 받는다.

2022년 “국제기능올림픽 특별대회 고양” 열전 끝 폐막

고양 대회에서 8개 전 직종 입상해 우수한 성적 거둬(금 5개, 은 1개, 우수 2개)

우리나라 참가 47개 직종 중 21개 마치며 특별 대회 중반에 접어들어



2022년 10월 17일,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QR코드를 스캔하면 2022년 “국제기능올림픽 특별대회 고양” 열전 끝 폐막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숙련기술인의 꿈의 무대인 ‘2022년 국제기능올림픽 특별대회 고양’이 10월 17일(월) 킨텍스에서 열린 폐회식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한국산업인력공단, 회장 어수봉)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10월 9일부터 18일까지 킨텍스에서 진행되었으며, 35개국을 대표하는 세계 최고 선수 133명이 참가해 사이버보안 등 정보기술(IT) 분야 7개 직종*과 금형 직종 등 8개 직종에서 기량을 겨뤘다.

* ① 사이버보안 ② 클라우드컴퓨팅 ③ 모바일앱개발 ④ 정보기술 ⑤ 웹디자인및개발 ⑥ IT네트워크시스템 ⑦ 3D디지털게임아트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이 축사와 함께 시상자로 참여하였으며, 2022년 국제기능올림픽 특별대회 최상위 타이틀 후원사인 삼성전자(주) 이재용 부회장이 시상자로 참석해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을 격려했다. 한국 선수단은 이번 대회 8개 직종 경기에서 정보기술 직종의 이정우 선수(삼성전자(주)), 웹기술 직종의 고시현 선수(삼성전자(주)), IT네트워크시스템 종목의 박원영 선수, 금형 종목의 김경필 선수(삼성전자(주)), 사이버보안 종목의 제갈지혜, 이슬 선수(삼성전자(주))가 금메달의 영광을 안았으며, 3D디지털게임아트 직종의 윤지은 선수가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 외에도 모바일앱 개발 직종의 박예송 선수, 클라우드컴퓨팅 직종의 이동근 선수(삼성전자(주))가 우수상을 획득하며 우수한 성적을 올렸다.

72년 역사를 가진 국제기능올림픽은 전 세계 청년 기능인들이 기능을 겨루는 최고권위의 직업기술 세계대회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주최로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다.

2022년 국제 기능올림픽 특별대회

구분	내용								
대회명칭	2022년 국제기능올림픽 특별대회 (WorldSkills Competition 2022 Special Edition) ※국제기능올림픽은 매 2년 개최, '21년 상하이대회 코로나로 취소 ➡ '22년으로 순연 개최 (한국을 비롯한 15개국 분산 개최)								
대회의의	회원국 청소년 간 기능교류로 기능수준 향상 및 기능개발 촉진								
대회주체	▶ 주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WorldSkills International, WSI) ▶ 한국대회 주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WorldSkills Korea)								
대회기간	▶ (특별대회 기간) 2022.9.3.~11.28. · 한국 대회: 2022.10.9.~10.18., (개회식) 10.12., (경기기간) 10.13.~10.16.								
대회장소	▶ 스위스 등 15개국(한국은 스위스 등 11개국에 선수단 파견) · 한국 대회: 경기 고양 킨텍스(10홀 A, B)								
경기직종	▶ 특별대회 전체: 산업기계 등 61개 직종 · 한국 대회: 모바일앱개발, 정보기술, 웹디자인및개발, IT네트워크시스템, 3D디지털게임아트, 사이버보안, 클라우드컴퓨팅, 금형(총 8개 직종)								
참가인원	▶ 특별대회 전체: 60개국 선수 1,012명, 국제지도위원 965명 등 총 2,263명 · 한국 대회: 35개국 선수 133명, 국제지도위원 127명 등 296명 ▶ 한국 선수단: 선수 51명(46개 직종), 국제지도위원 47명(47개 직종) 등 145명 · 해외 파견: 선수 42명(38개 직종), 국제지도위원 39명(39개 직종) 등 120명								
국가대표 선수 입상 특전	▶ 입상자 특전		· 해당분야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자격시험 면제 · 병역대체복무: 산업기능요원 편입 · 대학진학자: 금·은·동 입상자 대학등록금(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입상 후 동일 분야 1년 이상 종사자						
	등위	포상		상금					
	금(1위)	동탑산업훈장		6,720만 원					
	은(2위)	철탑산업훈장		5,600만 원					
	동(3위)	석탑산업훈장		3,920만 원					
	우수상(4위 이하)	산업포장		1,000만 원					
최근 대회 입상성적	<table><tr><th>2015년 브라질대회</th><th>2017년 아부다비대회</th><th>2019년 카잔 대회</th></tr><tr><td>한국(금13, 은7, 동5)</td><td>한국(금8, 은8, 동8)</td><td>한국(금7, 은6, 동2)</td></tr></table> ※직종 수 기준			2015년 브라질대회	2017년 아부다비대회	2019년 카잔 대회	한국(금13, 은7, 동5)	한국(금8, 은8, 동8)	한국(금7, 은6, 동2)
2015년 브라질대회	2017년 아부다비대회	2019년 카잔 대회							
한국(금13, 은7, 동5)	한국(금8, 은8, 동8)	한국(금7, 은6, 동2)							

9월부터 11월까지 스위스 등 15개국 26개 도시에서 진행되는 2022년 국제기능올림픽 특별대회는 10월 17일 현재 우리나라 참가 47개 직종 중 21개 직종 경기를 마치며 대회 중반에 접어들고 있으며, 스위스 베른에서 열린 가구 직종의 권수일 선수(에몬스), 목공 직종의 송재호 선수(에몬스)가 우리나라 첫 금메달 소식을 전했다.

고양 대회에서 진행된 IT네트워크시스템 직종에서 금메달을 수상하며 해당 직종 4연패를 달성한 박원영 선수는 “선배 선수들의 업적을 이어 금메달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다”라며, “앞으로 후배들이 명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처음 출전한 직종인 사이버보안(팀 직종)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이슬, 제갈지혜 선수(삼성전자주)는 “신규 직종으로 대회 관련 정보가 부족해 준비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서로 합심해 노력한 결과 좋은 결실을 맺게 되었다”며, “증가하는 사이버 위협에 맞서 대한민국이 사이버보안 강국이 되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금형 직종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김경필 선수(삼성전자주)는 “하루도 쉬지 않고 훈련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뿌듯하다”며 “고등학생 때부터 갈고닦은 기술로 우리나라의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후배 양성에 도움을 주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우리나라가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경기는 통신망분배기술 등 25개 직종이며, 11월 28일 오스트리아 대회를 끝으로 2022년 국제기능올림픽 특별대회 대장정을 마치게 된다. 특히, 이번 대회는 2021년 개최 예정이었던 제46회 국제기능올림픽이 코로나19로 인해 1년 연기 후 개최가 취소되면서 어렵게 개최된 ‘특별대회’로 국가 대표 선수단은 여느 때보다 긴 훈련기간을 보내며 대회를 준비해왔다.

한편, 지난 9월 14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훈련 현장을 방문해 ‘산업현장의 숙련된 전문기술 인력이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끌어 온 주역’이라며, 훈련 중인 선수들을 격려했다. 대회장을 맡은 어수봉 한국위원회 회장은 “51명의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번 대회를 계기로 더욱 성장할 것”이라며 “선수들이 이번 대회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현장에서 실력을 갈고닦아 우수 숙련기술인부터 대한민국 명장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의 입상자에게는 금·은·동 메달 순위에 따라 각각 6,720만 원, 5,600만 원, 3,920만 원의 상금과 훈·포장이 주어지며, 병역대체복무(산업기능요원 편입), 대회 입상자가 동일분야 계속 종사할 경우 매년 계속종사장려금(505만 원~1,200만 원) 지급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다음 2024년 제47회 대회는 프랑스 리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3만 명 돌파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자라면 모두 수강 가능한
인터넷 원격훈련

무료로 코딩, 빅데이터 분석 등을 민간 혁신 기관
에서 수강 가능

대상 확대로 훈련 인원 증가세 뚜렷



2022년 10월 18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하면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3만 명 돌파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은 노동시장 참여자가 디지털 역량 부족으로 노동시장 진입 또는 적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디지털 기초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딩, 빅데이터 등 디지털·신기술 분야의 초·중급 훈련과정을 훈련생이 선호하는 민간의 혁신 기관 중심으로 공급하는 훈련이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 한도(300만 원)와 별도로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에 사용 가능한 50만 원(1년 한도)을 지원하며, 훈련 시에는 훈련비의 10%를 부담했다가 수료 때(80% 이상 출석) 환급받을 수 있다. 100% 인터넷 원격훈련이라 언제 어디서나 수강할 수 있고, 코드 리뷰, 미니 프로젝트 수행 등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자기 주도 학습환경을 구축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어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최영섭)은 K-디지털 기초역량 훈련 참여자가 사업 첫해인 2021년 9,616명에서 크게 늘어 2022년 9월 말 기준 34,269명으로 3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사례

▶ A씨는 모바일 제조업체 팀장으로 근무하다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 중이다. 연말에는 복직해야 하는데 회사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위기의식을 가지게 됐다. 이를 고민하던 중, 회사에서 업무 처리 자동화(RPA)를 도입했던 것이 떠올라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중 “퇴근이 빨라지는 업무 자동화(RPA)” 과정을 수강하게 됐다. 인터넷 원격훈련 과정이라 육아를 하면서도 하루 1~2시간 정도 투자하여 강의를 듣고 다양한 활용 방법을 익힐 수 있게 됐다. A씨는 회사로 복귀하면 팀원들이 하는 반복적인 업무를 업무 처리 자동화(RPA)로 설계하여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겠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 B씨는 교육서비스업 사무직으로 근무 중인 5년 차 직장인이다. 그는 당장 이직이나 직무 전환 계획은 없었지만, 직무역량 강화 및 미래의 경력을 대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과정 중 “파이썬(python)을 활용한 경영데이터 분석” 과정을 수강했다. 이전에도 파이썬(python) 언어를 배우고자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수강한 적이 있으나 그 당시에는 프로그래밍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 학습 진도에 맞춰 따라가기 버거웠다. 하지만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은 온라인 강의라 충분히 반복하여 학습하고 실습을 통해 제대로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었다. 재직 중이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 주로 수강하고 퇴근 이후에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실습했다. 그는 직무 전환을 할 경우, 어떤 업무를 하게 될지 간접 체험할 수 있었고, 직무 전환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 중이다.

▶ C씨는 게임이 취미이고 게임 기획자에 관심을 가진 구직자였다. 게임 기획서를 쓰려다 보니 개발 지식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하여 학원을 알아보았고,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을 통해 무료로 코딩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 수업을 듣는 과정에서 비전공자도 개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기 적성을 찾은 것 같아서 개발 분야에서 일하기로 진로를 결정했다. 이후에도 개발 관련 수업을 추가로 수강하고 현재는 해당 학원에서 비전공 수강생을 위한 교육 과정을 만드는 ‘커리큘럼 피엠(PM)’으로 재직하고 있다.

한편, 훈련생들이 주로 참여한 훈련 분야는 응용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분야로 42.3%를 차지하고 있고, 디지털 디자인 12.8%,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링 10.1%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훈련과정으로는 웹 개발, 앱 개발, 에스큐엘(SQL) 활용, 3차원 애니메이션, 웹디자인, 영상편집 등의 과정을 주로 수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최근 디지털 전환(DX) 등 기술 발전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디지털 역량이 부족한 경우 변화된 노동 시장에 적응하기 힘들 수 있다”라면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등 최근 경향을 따라갈 수 있는 훈련과정을 통해 직무역량이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에 참여를 희망한다면, 직업훈련포털 누리집(www.hrd.go.kr)을 방문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과 상담 과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받은 모든 국민

기존에는 청년과 중장년 여성 구직자만 수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에서 '22년 7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받은 모든 국민”으로 대상을 확대 하면서 훈련 인원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연말에는 5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훈련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이 40.3%, 여성이 59.7%로 여성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상태별로는 재직자 49.4%, 구직자 50.6%로 비슷한 비중을 보였다.

훈련 실시 현황(성별)

구분	남성	여성	합계	구분	재직자	구직자	합계
인원(명)	13,802	20,467	34,269	인원	16,913	17,356	34,269
비중(%)	40.3	59.7	100.0	(비중)	49.4	50.6	100.0

나이별로는 20대가 55.2%, 30대가 28.7%로 20~30대가 83.9%를 차지하고 있으며, 40대가 10.8%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훈련 실시 현황(나이별)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합계
인원(명)	224	18,908	9,835	3,715	1,587	34,269
비중(%)	0.7	55.2	28.7	10.8	4.6	100.0

2022년 9월 고용동향



고용노동부,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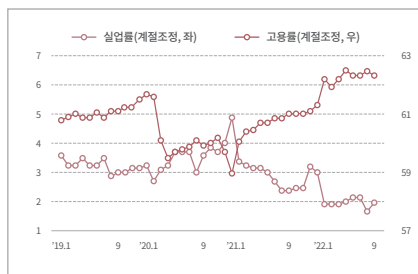


QR코드를 스캔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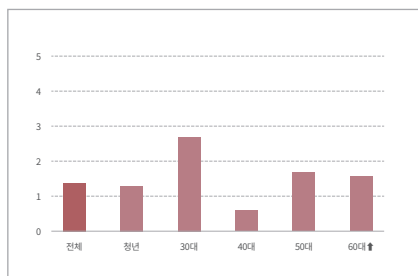
2022년 9월 고용동향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률(15세 이상) 및 실업률 추이(SA, %)



9월 연령대별 고용률 증감(전년동월비, %p)



주요결과

- '22.9월 고용동향은 9월 기준 역대 최고 고용률, 19개월 연속 취업자수 증가 등 고용 지표 개선되지만, 향후 고물가 지속, 금리인상, 수출증가세 둔화 등으로 취업자 증가 폭은 점차 둔화 전망
- 정부는 고용시장 면밀 모니터링 + 민간활력 제고를 통한 고용창출력 제고 노력

9월 고용지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이나, 전년도 높은 기저효과 및 경기회복 약화 영향 등으로 상승폭 둔화가 확대되는 모습

- ▶ 전년동월대비 15세 이상 고용률(+1.4%p)과 15~64세 고용률(+1.7%p) 동반 상승(9월 기준 역대 최고수준), 실업률(2.4%)은 △0.3%p 하락
- ▶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는 +70.7만 명 증가(19개월 연속 증가), 실업자 수는 △5.2만 명 감소(18개월 연속 감소)
- ▶ 전월대비 고용지표(계절조정 고용률, 취업자 수)는 소폭 하락 ➡ 상승세 둔화

제조업 상승세 지속, 상용직 중심 증가 등은 긍정적이나, 고령층 중심 취업자 증가와 청년층 취업자 증가폭 둔화 등은 한계

향후 고용률은 유지 내지 소폭 하락, 취업자 증가폭은 둔화 전망

- ▶ 4/4분기 고용은 기저영향이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고물가, 금리인상, 수출 증가세 둔화 등 하방요인 상존
- ▶ 내년은 경기 불확실성 확대,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폭 둔화 확대

고용시장 면밀 모니터링 + 민간활력 제고를 통한 고용창출력 제고 노력

- ① 고용창출력이 높은 신산업과 서비스산업 육성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 강화
 - 이차전지, 바이오 등 주요 수출업종(6개) 경쟁력 강화 전략
 - 수출 중소기업 지원 대책
 - 관광, 콘텐츠 등 주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년 초까지 순차적 마련·발표
- ② 노동시장 개혁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고용서비스를 고도화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최소화
- ③ 청년, 고령층 및 여성의 노동공급을 촉진하고, 현장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양성 및 근로유인 제공

이달의 키워드 & HRD 생생정보

이달의 키워드



* HRD동향 11월호 워드클라우드



2022년 HRD동향 11월호에
가장 많이 등장한 키워드는?



1위 청년



2위 일자리



3위 기능

10월에는 새 정부 청년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을 뿐 아니라 지역고용 활성화, 해외채용정보
간편 검색, 청년 기술교육과정 모집 등 “청년의 일자리”에 초점을 둔 각종 정책과 사업 등이
활성화되었다.

또한 기능한국인 선정, 국제기능올림픽 특별대회 등 기능인의 자긍심을 높이는 축제의 장이
이어졌다.

HRD 생생정보

지켜라! 노동자의 권리 노동 법제 개정안 살펴보기

참고: 한국직업방송 프로그램 - 고용브리핑 365

노동자의 알 권리,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지난해 11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이제 모든 사업주는 사업장의 규모, 업종,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근로자 누구에게나
임금의 구성항목과 공제내역 등이 적힌
임금명세서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해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 **50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금명세서 기재 필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 정보
-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항목별 금액
- 초과 근로시간 포함 계산 방법
- 근로소득세, 4대보험 등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근로자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교부되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PC)

- 고용노동부 무상 보급
- 홈페이지 moel.go.kr/wageCalMain.do

정당하게 쉴 권리,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인 사업장은
휴게공간 미설치 시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준비 기간을 고려,
50인 미만 사업장 및 50억 원 미만 공사현장의
경우에는 2023년 8월 18일부터
제재가 적용됩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 제재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

- 상시노동자 20인 이상 사업장
- 화약 직종(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기준

- 면적: 6㎡ • 높이: 2.1m 이상

휴게시설 관리 기준

- 온도: 여름 20~28℃, 겨울 18~22℃
- 습도: 50~55%
- 냉난방 시설 및 환기 시설 마련
- 소음 및 유해물질과 일정 거리 유지

근로자도 사업주도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법제의 변화!

한국직업방송 프로그램,
‘고용브리핑 365’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한국직업방송이란?

전국민 대상 직업·일·고용 능력개발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 및 송출하는 공익목적의
‘일자리 전문 채널’

일반고 특화 직업훈련 효용성 제고 방안



QR코드를 스캔하면
일반고 특화
직업훈련 효용성
제고 방안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 일반고 특화 직업훈련 수요조사 현황 검토 및 개선방안 도출, 일반고 특화 직업훈련 직종 개편방안 도출, 효과적 훈련정보 제공, 진로상담 방안 마련, 일반고 특화 직업훈련 우수 모델 개발 등 방안 마련

주요목차

- 일반고 특화 직업훈련 사업현황
- 일반고 특화 직업훈련 수요조사, 진로상담, 훈련정보 개선방안
- 일반고 특화 직업훈련 직종 개편방안
- 일반고 특화 직업훈련 우수모델 개발

2022년 8월, 고용노동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장주희, 류기락, 이상준, 이수경, 김세화

산학협력에 기반한 국가 수준 직업교육 체계화 법제 연구



QR코드를 스캔하면
산학협력에 기반한 국가
수준 직업교육
체계화 법제 연구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산학협력 기반의 직업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요구되는 제도 개선과 함께 직업교육 관련 법령의 개정 또는 제정과 관련된 쟁점을 도출함과 동시에 직업교육법(가칭)의 제·개정의 철학적 근거와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직업교육법(안)의 구성요소별 법 조항의 주요내용 제시

주요목차

- 산학협력 기반 직업교육 정책과 재정지원사업 실태분석
- 산학협력 기반 직업교육 쟁점과 법령 제·개정 동향
- 산학협력 기반 직업교육 관련 법 제·개정 인식 및 요구분석
- 산학협력 기반 직업교육 관련 법 제·개정 방향과 법률(안)

2022년 6월, 한국연구재단

박동열, 유진영, 이병규, 윤수정

고용행정자료 활용 방안 해외 사례 연구



QR코드를 스캔하면
고용행정자료 활용 방안
해외 사례 연구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 한국고용정보원
이시균, 전병유, 황규성, 정성미, 김기민

주요내용

- 고용행정자료의 노동시장 정책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소개

주요목차

- 독일 고용행정자료 사례
- 영국 공공행정자료 사례
- 미국 공공행정자료 사례
- 행정자료 활용 연구와 행정자료·설문조사자료의 결합 사례

코로나19 이후 주요국의 해외취업 수요와 유망직종 취업 특화모델 발굴방안 연구



QR코드를 스캔하면
코로나19 이후 주요국의
해외취업 수요와 유망직종
취업 특화모델 발굴방안
연구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10월, 한국산업인력공단, (재)한국정책학회
권경득

주요내용

- Post COVID-19 시대를 염두에 두고 청년들의 취업 유망 국가인 미국,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 체코 등 외국인력 수요가 높은 국가의 해외취업 수요와 유망직종에 대한 취업 특화모델 개발 연구

주요목차

- 각 국가별 해외취업 특화모델 구축(미국,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체코)
 - 기초조사
 - 취업처 현황 및 산업구조의 변화
 - 코로나19 전후 취업자 및 취업기관의 사례분석
 -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유망직종 제안
 - 특화모델 개발



- 9.30.~11.28.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실시
- 10.5.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10.6. 삼성중공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개소식
- 10.9.~10.18. 2022년 국제기능올림픽
특별대회(고양)
- 10.25. 2022년 3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
- 11.28. 제3회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 대회



- 11.1.~ 2023학년도 직업훈련과정
(전문기술, 하이테크, 신중년특화,
고교위탁과정) 교육생 모집
- 11.7.~11.22. 2023학년도 2년제 학위과정
수시2차 모집



- 9.26.~11.4. '22년 공정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공모
- 10.6.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개소식
(삼성중공업)
- 10.9.~10.18. 국제기능올림픽 특별대회(킨텍스)
- 10.7. 제1차 공감채용 정책포럼 개최
- 11.4. 제15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선정 결과 발표
- 11.7.~11.10. K-디지털 플랫폼 및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2023년 사업계획 심사



- 11.4. 한국기술교육대학교-한국공인노무
사회 업무협약 체결
- 11.8.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패방지경영
시스템(ISO 37001) 인증서 수여식
- 11.21. 공공기관 안전협의체 업무협약(한
국기술교육대학교, SR, 도로교통
공단, 한국광해광물공단, 한국원자
력환경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 11.29.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안전정책
최고경영자 과정 제1기 수료식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 11.30. '22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이의심사 결과 발표
- 11.14~11.18. '22년도 제7차 원격훈련
과정 신청·접수

K-디지털 트레이닝 성과평가 설명회

11.14. 서울 11.16. 부산

11.15. '22년도 제9차 이수자평가 결과 발표



- 11.1.~11.30. 온라인 진로 상담 이벤트 진행
- 11.10. 제2회 신직업-미래직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
- 11.17. 고용통계조사 포럼 개최
- 11.23. 진로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공동주최



- 10.5. 2022 KRIVET 패널 학술대회
- 10.5. 2022 개정 직업계고 교육과정 공청회
- 10.5. 2022 진로체험지원센터 온라인 연수
- 10.20. 「디지털 전환 시대, 평생직업교육의
역할과 과제 모색」정책 세미나
- 10.28. 2022년 제4차 사회정책포럼
- 11.2.~11.3. 글로벌인재포럼 2022
「The Next」 대전환 시대의 인재」
- 11.9. 2022년 제3차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온라인 워크숍
- 11.4. 2022년 민간자격관리자 온라인 연수
- 11.15. 2022년 제6차 국가진로교육포럼
- 11.18.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워크숍
- 11.22. 2022년 제5차 사회정책포럼

※향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2022 vol.3 국가기술자격 TREND BOOK”
전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 vol.3 국가기술자격 TREND BOOK

국가기술자격 TREND BOOK

2022년도 3분기 주요 이슈

“소부장”, “K-소부장”

• 소부장은 제조업체의 허리이자 경쟁력의 핵심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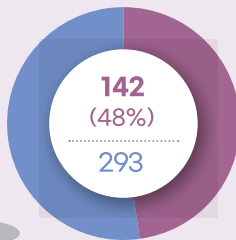
소부장은 ‘원자재 → 중간재 → 완제품’의 생산 구조에서 ‘중간재’에 해당하며, 완제품의 부가가치와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작용하며, 소부장 산업은 핵심기술을 보유하기 위한 기업들간의 각축전이 벌어지는 전장입니다.

소부장 산업 현황

소부장은 제조업의 생산, 부가가치, 고용 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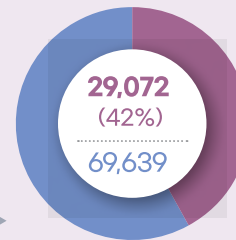
고용(인원)

- 제조업
- 소부장



기업수(개)

- 제조업
- 소부장



(‘19년 기준) 기업수는 종업원수 10인 이상 기업 기준

제조업 수 69,639개 중
소부장 기업은 29,072로
42% 차지

제조업 고용 인원
293만명 중 소부장
고용 인원은 142
만명으로 **48% 차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성장

소재·부품·장비 업체 수('01 Vs. '19)

단위: 개



2001

업체수
20% 증가



2019

소재·부품·장비 고용인원('01 Vs. '19)

단위: 만 명



2001

고용인원
28만 명 증가



2019

소재부품장비 업체수는
2001년 대비 2019년
29,027개로 **20% 증가**

소재부품장비
고용인원은 2001년 대비
2019년 141만명으로
28만명 증가

* 소부장 핵심전략 6대 분야 : 전기전자, 자동차, 기계금속, 기초화학,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분야	선정 종목(23종목)
전기·전자/디스플레이	전자기서/산업기서, 전자기기기능사, 전자기기/산업기서/기능사, 3D프린터개발산업기서, 3D프린터운용기능사
기계금속(금형·공작기계)	사출금형설계기서/사출금형산업기서, 프레스금형설계기서/프레스금형산업기서, 금형기능사
기계금속(금속재료)	표면처리산업기서/기능사, 금속재료기서, 금속재료산업기서, 금속재료시험기능사
기초화학	화공기서, 화학분석기서/기능사
반도체	반도체설계산업기서, 반도체장비유지보수기능사

당 신 의 꿈 을 피 워 줄 평 생 파 트 너

당신의 능력을 꽃 피우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인적자원개발 파트너로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평생능력개발, 국가자격시험, 해외취업, 외국인근로자고용, 숙련기술장려, 일학습병행,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블라인드 채용 등 국민의 일자리 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인적자원개발 파트너로 능력중심사회를 선도해갑니다.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